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4월 25일(주일) 제1341호



NGO 더멋진세상이 섬기는 남수단
난민촌 부드리마을 아이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활동 시작!

5월 11일부터 매주 오후 8시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5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도가 대상이다. 무공동체, 전도대상자, 구도자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온라인 공동체이다.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무공동체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양육과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커뮤니티 담당목회자와 리더들이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도 돕는다.

김수미 성도(사우디아라비아 거주)는 “해외에서 살다 보니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기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의지하면 될 외로울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정우 성도(축구 감독)는 “주말에 바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성도들에게 온라인커뮤니티가 신앙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주일 예배에서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도와 교회의 교제는 물론이고, 사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4월 24~25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 제출하거나 온라인 참여

NGO 더멋진세상이 4월 24일과 25일에 정기후원약정을 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행 16:9)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기후원약정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 로비에는 NGO 더멋진세상 안내데스크가 설치된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에는 4월 24일과 25일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동참할 수 있다.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기후원, 일시후

원, 증액후원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후원금액 등을 작성하면 된다.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소속 국제개발 NGO다. 지구촌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인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24개국에서 마을 개발 사업, 다음세대 교육, 모자보건사업, 코로나19 긴급구호 등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소외되고 가난한 지구촌 이웃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 아레이

다 자매(남수단 난민)는 “NGO 더멋진세상이 전수해준 농업기술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도와야 할 지구촌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 에드워드 목사(남수단 난민)는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아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역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관련기사 6면>.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02-02-2271-2248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5월 3일 유튜브 채널 업로드, 4월 25일까지 신청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5월 3일(월) 온라인(유튜브)으로 개최된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들은 4월 25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 참가 신청하면 전도사역본부에서 5월 이

내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신청자들은 반드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행복드림 2021’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 안내 및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은 5월 3일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모와 함께 시청하면 된다. 이홍렬(방송

인), 이성미(개그우먼), 여행스케치(가수), 김성기(뮤지컬 배우) 등이 출연한다. 전도사역본부에서 신청자들을 위한 특별 개인영상도 제작해준다. 행복드림 콘서트 전체 녹화본 영상에 신청자 개개인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삽입한 다음 USB에 담아 자택으로 보내준다. 자녀들의 영상편지 제출 마감일은 4월 25일까지다. 이메일(graceshj@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4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1’

/ 정현주 기자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 창립 15주년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4월 25일 오전 10시 본당(컨벤시아 2층 프리미엄볼룸 A,B홀)에서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설교한다.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는 2006년 4월 30일 ‘선교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비전으로 탄생한 국내 8번째 캠퍼스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교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새로 건축한 예배당(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반 194-4번지)에 입당할 예정이다.

서경남 목사(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 담임)는 “선교에 더욱 앞장서고, 차세대 양육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프랑스혁명 때 구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지롱드파는 온건한 부르주아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국민회의에서 오른쪽 편에 앉았기 때문에 '우파'라 불렸다. 반대로 급진적 개혁을 주장한 자코뱅파는 노동자나 서민을 대변하였고 국민회의에서 왼쪽 편에 앉았기 때문에 '좌파'라고 불렸다. 보수주의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글에서 프랑스혁명의 실패 원인이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버크는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을 프랑스혁명(1789년)과 비교하며 "영국의 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은 거의 모든 점에서, 그리고 근본적 정신에서 서로 정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버크 주장의 핵심은 사회질서이다. 사회 변화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견딜 수 없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반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자유와 평등의 측면에서 프랑스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을 비교하였다. 영국은 1640년 청교도 혁명 이후 자유를 목표로 40년 이상 걸쳐 점진적으로 민주혁명을 달성하려 노력했다. 반면 프랑스는 대혁명을 기점으로 평등을 목표로 즉각적인 민주혁명을 이루려고 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본능적으로 갈구하기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길 때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토크빌의 프랑스혁명 분석에 따르면 평등에 대한 갈구는 그 강도가 훨씬 높고 열렬하다. 인간은 자유 속에서 평등을 갈구하다가 찾지 못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예측 속에서도 평등을 찾게 된다. 이들은 가난, 속박, 무지함을 참지만 불평등은 참지 못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칼빈주의는 프랑스의 위그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네덜란드로 쫓기고, 또 영국으로 쫓기고, 다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 기존 종교와 정치체제에 저항하여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얻어내는 혁명을 이루었다. 네덜란드에서 스페인과 가톨릭에 대항하여 네덜란드의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얻어낸다. 토크빌이 영국의 명예혁명을 분석한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은 혁명의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끊임없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결국 경제와 종교의 자유에 간섭하는 영국의 식민지배에 대항해 미국독립혁명을 완성한다. 그 결과 이들은 창조주께서 주신 양도 불가능한 인권의 수호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법질서 준수를 미국독립선언문에 천명한다. 이들 세 나라 혁명의 공통점은 종교의 자유를 향한 끝없는 저항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토론에서 "뉴잉글랜드 청교도 부인과 프랑스 소설에 나오는 부정한 아내가 다르듯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한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평등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를 대비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설명한다.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그에 개입을 피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시장의 불합리한 부분에 개입하여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보수는 성장을 통한 파이 확대에 주안점

을 두는 반면, 진보는 공평한 분배를 우선시한다. 이런 이유로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에 가치를 두지만, 진보는 집단 내에서의 평등과 공리에 가치를 둔다. 변화에 대해 보수는 점진적인 것을, 진보는 급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꼭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내려는 것을 보수라 한다. 프로테스탄트의 혁명이 정착한 국가에서 보수가 지키려는 가치는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반면 진보는 보수가 주장하는 것의 가치가 이제 사라졌으니 빨리 기준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오늘날 가장 침예하게 부딪치는 기준이 동성애, 성전환, 낙태, 동거 등의 성혁명 이슈들이다.

기독교인은 어떤 정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성경이 가리키는 가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정치적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며, 결국 절대적 기준의 문제이기에 반드시 종교와 윤리로 귀결된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위와 질서 아래의 안정이 필요하다. 사회는 바뀌어야 하지만 신중한 변화만이 사회의 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러셀 커크의 주장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주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묵상: 당신은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인본주의 우상에 대한 고찰 3

잘못된 가정에 의거한 당연한 귀결

자본주의의 경제적 부조리를 보고 분노한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고 공산주의 선언을 했다. 이것에는 네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 오류는 자본주의의 장점과 본질은 외면하고 부작용만 가지고 분석했다는 객관성의 결여다. 두 번째 오류는 자본가들은 모두 악인이고 근로자는 모두 의인이라고 간주한 편견의 오류이다. 세 번째 오류는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수탈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스스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근로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을 숙청해야 한다고 선동했다는 점이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네 번째 오류는 근로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부를 만들면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서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첫 번째 '객관성의 결여'라는 오류는 역사적으로 큰 잘못임이 드러났다.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이라던 자본주의가 여러 차례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 풍요를 이뤄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부정적인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틀렸다고 하는 오류의 무서

움을 보게 된다. 자본주의의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은 결과적으로 하층민들도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냈다. 반면 저소득자를 위한다고 주장하던 공산주의는 모든 국민의 빈곤 계층화, 하향평준화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두 번째 자본가(자본주의자)는 모두 악인이고, 근로자나 사회주의자는 모두 의인이라고 간주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나님은 재판할 때 재판관이 권력자의 낯을 봐주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를 부당하게 편들어주는 것도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다.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그들의 대표들도 결국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력을 가지면 이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르크스가 간과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한번 권력을 잡고 그 맛을 본 자들은 지속적으로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필연적으로 1당 독재, 1인 독재, 강력한 정부에 의한 통제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

주의적 전체주의 독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주장에 이익을 표하거나 정권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국민은 제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세 번째 오류는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근로자들의 노동의 결실을 수탈하는 자본가들을 제거하자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공산주의자(인본주의자)들에 의한 대량학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실험의 결과로 중국에서만 4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 러시아,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도 각각 수백만 명씩 죽었다.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자들의 분노가 가져온 참극이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정의감에 따라 사람들을 선동한 대가는 인류역사상 너무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오류임이 증명됐음에도 아직도 이 이념을 자신들의 권력 추구를 위해 이용하는 정치가들이 중남미와 아시아 몇 개국에 실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하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실패한 실험으로 선동하는 정치가들의 거짓

말에서 깨어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네 번째 생산과 분배를 공산주의 정권의 이성적 계획에 따라 운영하면 빈부격차가 없고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분명한 오류임이 밝혀졌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맞춰 분배하자는 순진한 꿈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이기주의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분배받는 것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누구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자 하지 않았다. 일을 적게 하고, 감독자의 눈만 피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노예의식화'가 일어났다. 생산하는 것이 적으니 나눌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칼 마르크스의 주장은 잘못된 가정에 의거한 인본주의적 주장의 당연한 귀결이다.



정대서 장로
(푸른누리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34절).

신학교 시절 뒷산에 올라 산책하고 잠시 기도하며 박윤선 목사님의 묘비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학자의 묘비에 쓰여 있는 구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성경 전체 구속사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말씀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평범해 보이고 신학적이진 않은 것 같은 말씀을 평생 좌표로 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잡한 신학을 담고 있지 않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없이 아무렇게 살라는 말씀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을 세우려고 한다면 완공될 때까지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 “전쟁을 하면 과연 그 전쟁이 승산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아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일에 대한 준비 없이 오늘의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그저 먹고 마시자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서 회피하고 있어버리고자 마취상태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걱정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어서 진리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자연 현상을 이끌어 오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들꽃을 보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피조물을 비유하실 때 너무 많은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유 상황에서 주시는 교훈에 집중할 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의 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유심히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새끼 새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들이 새끼들을 낳기 위해서 부리로 동지를 만드는 모습이 기묘했습니다. 새들은 자기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서 가족을 보호하고, 애써 만든 동지 안에서 새끼들을 낳습니다. 어미 새는 어디선가 먹이를 마련해서 새끼 새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놀라운 것은 굶어 죽는 새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다가 기진맥진해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 새가 없습니다. 육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 하늘을 나는 바다를 나는 새를 누가 먹이는지 너는 아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들을 먹이신다.”

새가 하늘 높이 날아서 넓은 세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볼 수 없습니다. 새가 여러 날을 비행한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볼 수 없습니다. 새는 언제나 오늘을 살 뿐입니다. 백합화와 들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전부인 들꽃도, 오늘 피었다 지는 꽃도 내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피었다 지는 꽃도 완벽한 꽃으로 창조하십니다. 꽃에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색이 있습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자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와 꽃을 보면 내일이 없이 오늘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나의 날로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내일에 대한 걱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내일을 나의 날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 나에게 보장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 나라”(잠 27:1 개역개정).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쉬려고 했던 직장인이 퇴근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간도 보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만 살 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내일을 계산하지 않고 오늘날 살아가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불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들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날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면 내일에 대한 걱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병원으로부터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목회자가 그 가정을 위로하려고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저에게 앞으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여기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일주일이나 남았다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나의 날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를 살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먼 미래에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일의 괴로움을 만들지 말라

둘째, 스스로 내일의 괴로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괴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에 해당하지 않는 괴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날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있

고,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의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보장하지 않고, 괴로움이 잠시만 있을 거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존재하고, 그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삶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괴로움을 이길 힘이 오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괴로움을 미리 끌어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괴로움보다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가져온 걱정이 더 힘든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괴로움을 발명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괴로움을 앞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걱정은 내일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내일의 괴로움을 끌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괴로움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받고, 그 괴로움 속에서 변화되고, 그 괴로움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괴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정을 끊는 것입니다. 정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땅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장애와 고통,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소멸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영원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죽으신 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몸은 곧 성육신하신 몸입니다. 바로 그 몸이 고난 당하셨고,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몸이 부활하셨고, 그 몸이 승천하셨고, 그 몸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몸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씨앗처럼 소멸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을 통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됐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생명 경시 풍조를 바꿉시다 3. 생명운동

작은 생명, 작은 자를 귀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야 할 '생명운동'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명이비인
후과 원장, 의료윤리
연구회 회장)

모든 세대에서 법은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이다. 약한 자를 징벌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법이 그 목적을 잃고 약자를 외면한 사건이 있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시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다. 낙태를 원했던 22세 여성 노마 맥코비가 로(Roe)라는 가명으로 지방검사 웨이드(Wade)를 상대로 벌인 재판이었다. 로는 강간으로 임신했다고 검사를 속였다. 낙태 옹호론자인 두 명의 여성변호사의 도움으로 낙태 금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낙태 금지법인 수정헌법 14조가 '여성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들이 폐지되었고, 당시의 술로는 살릴 수 없었던 24주 태아까지 낙태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1년 1월 미국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48년 동안 미국에서 총 6천2백만 건이 넘는 낙태가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한동대 법학전문대학원 굴드(Gould) 교수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포럼에서 미국의 27개 주 전체 인구를 모두 합쳐도 지금까지 낙태된 태아의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잘못 제정된 법이 무수한 생명을 죽게 만들었다.

잘못된 정책과 법이 태아의 생명을 꺼뜨린다

1973년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는 배경에는 산아제한운동(birth control movement)을 주도한 마가렛 생어의 역할이 크다. 간호사로 일했던 여성운동가 생어는 1916년 미국 최초의 피임센터인 산아제한클리닉(birth control clinic)을 열었다. 이 기관이 1942년 미국 최대 피임 및 낙태기관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로 발전했다. 이 협회는 피임약 개발에 매진해서 여러 소송에서 이기고, 1965년 사용 허가를 받아냈다. 이러한 산아제한 분위기에서 1973년 낙태 합법 판결이 내려졌다.

마가렛 생어의 산아제한정책은 우생학에 바탕을 두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부모로부터 질병을 물려받은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인간이 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히 "더 이상의 아기는 안 된다(No more babies)"고도 했다. 1930~1940년대 우생학은 유전병은 물론

이고 범죄자, 정신박약자, 정신병 환자들을 강제 불임시키는 사업에서 큰 역할을 했다. 1952년 생어는 활동을 국제무대로 넓혔다.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을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지냈다. 이 단체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한민국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1953년 해방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은 생명을 존중하는 근대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지원을 받아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족하면서 낙태금지법이 무색해졌다. 우생학에 바탕을 둔 국제가족계획연맹의 가족계획은 개발도상국에서 오직 산아제한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



하면서까지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시행했다. 형법에 낙태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이 쉽게 낙태를 할 수 있었다. 낙태죄가 거의 사문화(死文化)되어 효력을 잃었고, 낙태가 크게 성행했다. 1961년 33% 남짓하던 낙태 경험율이 1985년 53%까지 치솟았다. 여성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낙태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낙태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만들었다. 1973년 정부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낙태를 일부 합법화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이 심각하게 해해를 받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낙태 허용 사유는 국민들에게 낙태가 합법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오랜 기간 국민들은 낙태가 인간 생명의 훼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다. 잘못된 정책과 법이 국민의 눈을 가려서 태아의 생명을 꺼뜨리는 일에 가담하게 한 것이다.

가족계획협회가 들어서고 60년이 지나는데도 국민들에게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과학의 발전은 내시경으로 엄마 배 속의 아기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생명의 실재를 알게 해주었다. 신생아학의 발전으로 22주 초미숙아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또한 시험관 아기 시술이 보편화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정란이 곧 생명인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생명의 존재를 마주하며 이제 더 이상 낙태가 월경조절이나 세포 조직을 제거하는 여성의 권리라고만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약 50년 전 제정된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사유도 현대 의학에서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의학적 낙태 허용 사유였던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는 치료의 대상일 뿐이지 더 이상 낙태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태아가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 임신 10주 이후 복용하면 자궁과열 및 대량 출혈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을 쉽게 허용하면 안 된다. 둘째, 16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가 없어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도 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데,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일을 부모 없이 결정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셋째,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원할 때는 '상담사실확인서'만 있으면 가능하게 했다. 상담자 자격에 굳이 성범죄 전과자를 포함 시킨 것도 문제이고(제7조의5), 상담 후 숙려기간을 고작 24시간만 주고 낙태할 수 있게 한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법은 반드시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온다.

잘못된 법안 하나가 수천만 명의 아기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잘못된 정책으로 여성의 절반 이상이 낙태를 경험했다. 정부는 단지 낙태를 몇 주째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잃게 하는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개정되어야 할 법안은 낙태를 막는 법!

개정되어야 할 법안은 낙태를 막는 법이어야 한다. 아기가 낙태되거나 유기되지 않도록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보호하는 보호출산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아빠의 책임을 강화해서 아기의 양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일명 히트 앤 런(Hit and run) 방지법인 남성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에게 적극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가정을 선별해 주는 입양사업과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생명을 존중하는 성(性)윤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출 1:21). 세상의 권력에 맞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지킨 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축복해 주셨다(출 1:15, 십브라와 부아). 성도들이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서는 것은 단지 낙태 합법화 법안을 막고자 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려는 것이다. 낙태를 고민하며 두려움에 싸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주려는 것이다. 생명 운동을 통해 낙태를 경험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고, 다음세대를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함이다. 작은 생명,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노인 95% 온누리복지재단 서비스 매우 만족!

생활지원부터 정서적 지원까지 ‘맞춤복지서비스’ 제공

본지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누리복지재단이 노인들에게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누리복지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노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누리복지재단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서울시 거주 노인 219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 95%가 온누리복지재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식료품 지원, 방역품 지원,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말벗, 안부전화), 가정방문 등의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온누리복지재단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낮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노인들은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하다.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도 끔찍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에서 95%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더욱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들에게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외출 제한, 복지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이다.

코로나19는 노인들의 생명부터 위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811명이다. 이 중 95.3%(1,723명)가 60세 이상 노인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80세 이상 54.8%, 70~79세 28.7%, 60세~69세 11.7%나 차지한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는 나이가 많을수록 입원이나 사망 등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사망 위험이 20대보다 65~74세 90배, 75~84세 220배, 85세 이상 630배 높다.

코로나19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문제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노인들이 당장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일이 찾아졌다.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자료에 따르면 연간 1만6천여 명의 노인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한다. 무료급식이 멈추면 그만큼의 노인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양 불균형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용품 구매하는데도 제약이 따른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받 빠르게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지난해 5월 제주지역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일상생활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45.7%)’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외출제한으로 인한 갑갑함과 외로움(33.7%)’,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의 어려움(21.2%)’ 등의 순이었다.

우울, 고립감 등 정신건강에도 적신호

노인들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코



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해 9월 전국 시·도 60~70세 노인 355명을 대상으로 노인우울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노인 14.3%가 ‘우울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해 6월 독거노인 52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불안감, 고립감 등 노인우울증 척도’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독거노인 159명(30.4%)이 ‘중증 우울’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우울감은 대부분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된다.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제주 고령자 1천 명, 예비고령자 300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노인들의 우울함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편은 ‘가족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들과의 왕래 감소(70.5%)’였다. 그 다음은 ‘운동이나 친교 모임의 감소(46.3%)’, ‘마트나 병원을 비롯한 대중시설에 갈 수 없음(38.8%)’,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의 운영 중단(3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안 그래도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노인들에게 연결고리가 되어주던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정말 많은 노인이 고독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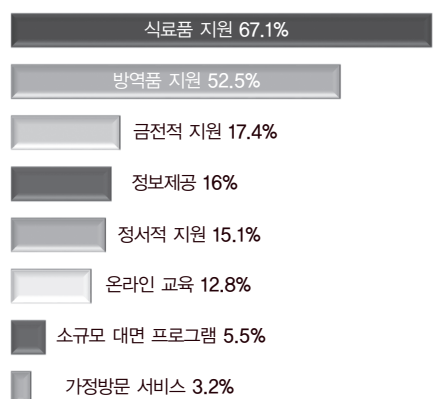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고령자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불안과 두려움, 고

립감과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외출을 하지 않고,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노출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외에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몰라 불안감이 시달린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우울하고 아주 괴롭다”, “복지관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사는 재미가 많이 줄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온누리복지재단 덕분에 코로나19 극복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결식, 방역품 미비, 정보 취득 제한 등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지원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도시락과 밀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서적 지원도 빼놓지 않고 있다. 우울과 불안, 고독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말벗, 안부 전화,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면서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맞춤복지서비스를 경험한 노인들이 크게 감동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험한 노인 219명 중에서 208명(95%)이 “온누리복지재단 덕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맞춤복지서비스 중에서 ‘식료품 지원(147명, 67.1%)’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방역품 지원 115명(52.5%), 금전적 지원 38명(17.4%), 정보제공 35명(16%), 정서적 지원 33명(15.1%),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28명(12.8%),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12명(5.5%), 가정방문 서비스 7명(3.2%) 등의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맞춤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서 불안감과 우울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온누리복지재단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불안감이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불안감보다 낮았다(유의확률 $p<0.05$). 온누리복지재단의 맞춤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우울감 역시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우울감보다 낮았다(유의확률 $p<0.01$). 이처럼 온누리복지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인들의 생활 및 심리, 사회, 정서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그 아름다운 섬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인들을 더욱 잘 보살피고 섬기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을 앞두고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 벌어지는 일

사역자가 목격한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의 변화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 벌어지는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가 지구촌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달 되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다. 남수단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 부드리마을이다. 부드리마을은 NGO 더멋진세상과 만난 지 4년 만에 새 생명과 희망이 움트는 마을로 탈바꿈했다. 그 현장에 NGO 더멋진세상 고대선 실장(국제협력실)이 다녀왔다.

/ 편집자 주



고대선 실장
(NGO 더멋진세상
국제협력실)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 국경지대에는 수많은 텐트가 황량한 대지를 뒤덮고 있다. 조그만 천막 안에는 고향을 떠난 아픔을 삭이며 하루 하루 버티고 있는 1백 4십여만 명의 난민들이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섬기고 있는 부드리 마을도 난민촌 중 하나다.

“어? 여기가 어디지? 여기 부드리 난민촌 맞아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부드리 마을은 예전의 난민촌이 아니었다. 하얀 천막은 우간다 전통가옥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로가 생기고, 길을 따라 식료품과 생필품 가게도 들어섰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을 같았다.

정봉진 지부장(NGO 더멋진세상)이 부드리 마을에 생긴 그 엄청난 변화를 설명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부드리 초등학교입니다. 그 옆에 학생들과 마을을 위한 식수시설이 있고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교사들의 숙소 동입니다. 이 길도 새로 뚫었습니다. 저기 수도 시설 보이시요? NGO 더멋진세상이 설치한 것입니다. 저기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유치원도 보이네요.”

정봉진 지부장의 설명을 듣다 보니 어느새 농장에 도착했다.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인근 난민 정착촌 5개 마을에서 3명씩 선발된 마을 대표들입니다. 이들이 12월까지 훈련을 마치면 내년에는 자기 마을에서 양계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농장 때문에 하루 일과표가 붙어 있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목상시간이 눈에 들어왔다. 훈련생 모두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곳에서 신앙훈련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양계기술을 배워서 마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난민촌에 일자리가 없었는데 양계장이 생기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양계기술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꿈을 고백했다. 그들은 적도 지역의 강렬한 태양도 아랑곳하



변변찮은 교실도 없이 굶주리던 부드리 난민촌 아이들(위)이 NGO 더멋진세상이 지원한 학교와 급식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있다(아래).

지 않고 곡괭이를 들고 바나나나무를 심기 위해 열심히 구덩이를 팠다. 부드리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상처투성이 난민들이 아니었다.

굶지 않고,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있다

정오가 되자 부드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삼삼 오오 급식을 먹는다. 문득 3년 전 만났던 부드리마을 아이들이 떠올랐다.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을 헤매거나 쥐를 잡아 허기진 배를 채우던 아이들이었다. 굶기를 예사로 여기고, 학교에 갈 생각조차 못하던 아이들이 멋진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더 이상 굶지 않고 아침과 점심식사를 급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급식을 지원하면서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다. 가정에서는 식량 걱정을 덜었다. 난민촌 곳곳을 방황하며 어슬렁거리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사건·사고도 줄었다. 이거야말로 일석삼조다.

나무 그늘에서 수업을 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벽돌로 지어진 쾌적한 실내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다. 교실에서 사뭇 진지한 얼굴로 칠판을 응시하며 수업 듣는 아이,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지적을 받으며 배우는 아이, 친구들과 장난치느라 짓궂은 웃음을 짓는 아이들이

보면서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건축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급식이 제공되면서 아이들과 가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알리사드 음비아(62세) 촌장이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더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

부드리마을에는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가 9개 있다. 3년 전에는 대부분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NGO 더멋진세상의 지원에 힘입어 대부분 교회에 지붕이 생겼다. 하지만 난민촌 목회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난민촌 교회에 적절한 양육 프로그램이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난민촌 목회를 하는 에드워드(50세) 목사가 난민촌 교회의 현실을 토로했다. 추수할 대상이 많은 난민촌 교회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를 잃고 친척이나 지인

의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대에 쉽게 노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이 시급하다고 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생활이나 심리적 지원이 취약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지참금을 받기 위해 서둘러 결혼을 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고 심리적 치료를 해주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과부, 고아들이 넘쳐나는 난민촌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NGO 더멋진세상이 이곳에서 더 열심히 달려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난민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소득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NGO 더멋진세상이 농장을 세워서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장을 확대해서 양계사업을 하고, 난민들이 곡물(옥수수, 콩)을 생산하는 농업사업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촌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날 들렀던 유엔난민기구(UNHCR) 모요 사무소 테레사 소장이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학교를 세우고, 급식을 제공하며, 마을 전체를 위한 식수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사업을 바탕으로 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도 난민촌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와 사업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신뢰 관계 구축하며, 내부 역량강화를 통해 IP(Implementing Partner) 지위를 얻게 되면 국제기구의 펀드를 통한 사업 기회도 열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젊은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가 부드리 마을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아픔이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고 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듣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NGO 더멋진세상도 난민들의 외침에 귀를 열고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 귀한 일에 동참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감사하다. NGO 더멋진세상이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더 멋진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숙(私淑)한 시인

다형 김현승과 그의 신앙詩



자우심으로
자우심으로
그 얼굴아로새겨 놓으실 줄이야..

홀으심으로
꽃잎처럼 우릴 홀으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이야..

비우심으로
비우심으로
비인 도가니 나의 마음을 울리실 줄
이야..

사라져
오오,
영원을 세우실 줄이야..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보석들의 광채를 깊이 담아두시는
밤과같은 당신은, 오오, 누구이오니까!

우리에게 ‘가을의 기도’라는 시로 잘 알려진 다형 김현승(1913년 4월 4일~1975년 4월 11일)의 시집 <옹호자의 노래>(1963년 출간)에 수록된 ‘이별에게’라는 시의 전문이다. 행과 연을 원래대로 나누어 천천히 읽다 보면 짧고 간결한 시 속에 시인이 어떤 깊이로 그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어(詩語)로 응축해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김현승 시인은 자주 ‘가을의 시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시인이 태어난 달도, 소천한 달도 4월이다. 시인의 잊혀져가는 몇몇 신앙시편들을 부활절의 달 4월에 불러내보고 싶다.

당신의 찢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이 피어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당신의 못 자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 ‘부활절에’ 中

사람들은 시인을 시의 주제에 따라 명명하기를 좋아해 김현승을 ‘지성의 시인’, ‘고독의 시인’, ‘기독교 시인’ 등으로 부르지만 기독교는 김현승의 시의 한 범주로 구별하기보다는 모든 시적 영감과 실전을 관통하는 토양이자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은 축축하면서도 견고한 그의 모든 시 열매에 수액을 제공했다. 시인 자신도 여러 에세이와 문학론에서 그의 시가 기독교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수시로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시에 영향을 준 시인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꼽는다.

“(4복음서의) 예수의 말은 모두가 구체적이고 시적이다. 그의 행동도 그렇다. 그의 온 생활 자체가 시다... 그렇게 고결하고 인정 많고 고독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할 수가 있을까” (‘시였던 예수의 언행’에서).

고독, 눈물, 가난 그리고 예수

‘자연 시인’이라는 명명에 걸맞게 김현승은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의 만란한 풍경을 시에 담았다. 그의 시에는 눈물이 많다. 감사와 회개와 척박한 시대와 그리움의 눈물들. 그렇지만 그의 눈물은 그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이 그런 것처럼 대상화되어있지 않고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인 몰입에서는 멀리 있다.

김현승의 시에서만 관찰되는 지성과 감성의 균형, 이곳의 세상과 저 먼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는 균형, 뛰어난 감각과 깊은 사유의 균형은 한국시사(史)에 드문 고결한 신앙시를 낳게 했다. 그러나 김현승 시인의 고유성은 자신을 비운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연을 지으신 분의 면모를 독자가 만나게 한다는데 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중략)...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 ‘눈물’ 中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이 시를 관통하는 것은 창조주 앞에 깊은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비움의 시선, 시인이 경험한 ‘당신’

(그분, 주)를 추구하고, 현상의 소멸 이면에서 견고한 것을 보는 시심이 그의 신앙시편들을 형성한다.

김현승 시인은 그분이 지으신 자연의 신비를 보기 위해, 시인이 사숙(私淑;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는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음)한 시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자신을 비울 때만이 생성되는 시심을 그린다.

내가 가난할 때...
저 별들의 더욱 맑음을 보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당신의 얼굴을 다시금 대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육신일 때,
...(중략)...
당신은 오늘 내 집에 오시어
금은기명과 내 평생의 값진 도구들을
짐짓 문밖에 내어놓으시다!
- ‘내가 가난할 때’ 中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가난해짐, 내려놓음, 비움에 대한 흥미가 있기에 김현승의 시어는 견고하며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신앙의 갈피를 두루 탐사하되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감상에 젖은 자의 흔들림이 없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일제와 해방 후의 불같은 역사의 부침 속에 절필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언정 그의 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험한 시간을 살아내야 했던 역사 속의 시인이기도 했다. 그는 일상의 구차한 정경들을 끌어안은 여느 필부의 여기, 지금의 삶도 고즈넉하게 그려낸다. 일상에 드리우는 그의 시간관조차도 눈앞의 한시적이며 극적인 시간에 경솔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시간은 늘 명일(明日; 내일)이다. 먼 영원의 시간이자 생명의 시간이다.

나의 잔에는
천년의 어제보다 명일의 하루를
넘치게 하라
...(중략)...
내일,
오랜 역사보다도
내일만이 진정 우리가 피고가는
풍성한 흙이 아니냐?
- ‘내일’ 中

김현승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이 ‘명일’은 무엇일까? 이것은 그의 시에서 자주 새로운 빛의 시간, 생명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다.

육체는 낱아지나 마음으로 새롭고
시간은 흘러가도 목적으로 새로워지나이다!
목숨의 바다-당신의 넓은 품에 닿아 안기
우기까지
오는 해도 즐기 즐기 흐르게 하소서
- ‘신년기원’ 中

김현승 시의 고즈넉함, 고독, 눈물, 가난해진 마음, 마른 가지 같은 정결함... 이런 이미지들을 따라가다 보면 시인이 독자의 세상으로 어떤 시적 자아를 파송했는지 그 모습이 오롯이 심상에 떠오른다. 그것은 절대자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겸허한 기도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솔직함과 별거벗음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인은 소멸과 영원 사이에 놓인 피조된 자의 절대적 고독에 대해 일련의 시를 발표한다. 시인은 그 고독을 깊이 들여다보고 탐구하며, 그 주제를 다룬 여러 시편이 두 권의 시집 <견고한 고독>과 <절대 고독>에 수록되어 있다. 초기 시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던 주제 ‘고독’이라는 주제에 침잠하던 시기에 시인이 어떤 실존의 광야를 횡단하고 있었는지, 그의 ‘어둔 밤’은 어떠했는지, 그가 만진 ‘영원의 먼 끝’(<절대 고독>)은 어디인지 후대의 독자로써 그에 대해 단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시 전체를 살펴봐야 하리라. 그러나 바로 그때 시인은 <절대 신앙>같은 숨을 멈추게 하는 시들을 쓴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시인은 고독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색할 시간도 없이, 재직하던 송전대학교(송실대 전신) 채플 기도 시간에 쓰러졌고 그날 소천했다. 그의 지상에서의 삶은 길지 않았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기껏해야 반세기 남짓할 때였던 1934년 등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숙한 시인의 신앙의 삶의 여정은 그가 사랑한 시인 예수를 닮아 견고하고 신비로운 인격을 보여주는 시가 되었다.



최윤 교수
(프랑스어예배, 작가)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졸지 마라!”

“사는게 너무 팍팍합니다. 3포세대, 취업난, 갈수록 치솟는 집값과 결혼비용 등 생각할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자괴감이 들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시 청년의 때를 살아내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이 힘들 듯 나도 가장 열기왕성했던 청년 시절이 힘들었다.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에는 시대의 구별이 없는 것 같다.

청년 시절은 재정도, 경험도 부족하다. 외연도 좁고 안목도 일천하니 시행착오가 일상이다. 꿈은 현실 앞에 날아가 버리고, 숨은 턱에 차고, 새가슴이 되어버린다. 청년의 때에는 젊음이 특권인줄 모르고 지나쳤다. 후회와 아쉬움 속에 그 시절을 그리워해 보지만 다시 가고픈 생각이 없는 것은 그만큼 그때가 힘든 시절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청년의 때는 시대를 초월해서 철저한 광야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세월과 당당히 부딪쳐야 한다. 좌절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을 우리가 당장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먼저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선부른 열정이나 자기(능력)중심적 삶을 통해 거침없이 꿈을 이룬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것이다. 요셉도 노예의 삶과 노명, 갇은 고초와 옥살이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었다. 그가 30세에 이집트 총리에 오를 줄 알고 기다렸다면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었을 것이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십수년의 자기성찰 시간을 갖고난 뒤 비로소 쓰임받기 시작했다. 이집트 왕자로 명문 귀족의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에 가득찼던 모세는 그 넘치는 자신감과 성급한 열정이 화가 되어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40년을 보내야 했다. 황당한 광야에서 자기성찰 시간을 통해 ‘다시 만들기’ 작업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과 거룩한 열정을 주셨다. 성숙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야학교, 모진 고난의 길을 걷는 자기성찰의 훈련이 필수라는 것을 성경 속 인물들이 증거하고 있다. 캄캄한 시절, 가난한 심령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 길이 열리고 쓰임 받기 시작한다. 그러니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인(Sign)이다.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나이테의 다른 말

이 연륜(年輪)이다. 나이테는 보통 1년에 하나씩 생기는데, 기후 변화가 없는 열대우림지역의 나무는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하지 않은 인생이다. 고난 수만큼의 연륜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담보하고, 우리가 단단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부디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b)고 말씀한다. 인생에 바람 잘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청춘의 아픔이 인내를 키우고, 거룩하게 하고, 단단하게 한다면 이 아픔은 분명 축복일 것이다. 연단과 돌이킴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모진 폭풍을 만나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지만 크리스천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리라 확신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내가 증인이고, 내 삶이 그 증거이다. 브엘세바의 황량한 벌판 그 무섭고 떨리는 장소에서 아픔이 베고 잤던 돌베개가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 뻗음이 되었다. ‘폐허의 산’ 호렙 산 위에 있던 왜소하고 볼품없는 가

시덤불이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다. 대단한 곳에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사각(死角)에도 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가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졸지 마라!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 아닌가! 끝 모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가? 분명히 끝이 있다는 믿음과 폭풍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된 자신을 바라보며 나열하기도 벅찰 만큼의 감사제목이 쏟아져나올 거라는 믿음이 오늘을 넉넉히 살아내게 할 것이다. 주 안에서 당당히, 가슴 쪽 펴고 마음껏 젊음의 특권을 누리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한다

* ‘라떼는 말이야’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멘토님들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조언과 위로로 건네주는 코너이다. 청년들이 고민이나 사연을 보내주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조언과 위로를 선물한다. 고민이나 사연 보내는 곳: joo@onnuri.org



심희돈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대표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모상담

훈육에 대한 부부의 지혜로운 합의

“남편과 자녀 훈육 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큰 소리로 혼을 내는 남편 때문에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아이 앞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잦아지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건강하게 키우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것이 크리스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목표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녹록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와 다른 신념과 가치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과 대화, 절충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 특히 훈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다. 부부는 갈등 속에서 대화 단절, 다툼, 지지받지 못하는 경험, 혼자인 경험,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기도 한다. 자녀 훈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부 갈등은 피할 수 없

는 성격이 있다.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부의 깊은 불신과 갈등이 자녀 훈육에서 일어나는 불일치한 상황을 기점으로 심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서적 체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가족에서 형성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 풀지 못한 개인의 역사가 있다. 훈육 과정에서 부부의 개인적인 역사와 역동이 충돌하게 된다. 서로 양육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며, 남편과 아내의 일반적 특성이 다르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훈육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쪽 배우자가 허용적이라면 다른 한쪽 배우자는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허용적인 배우자는 엄격한 배우자의 양육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반대로 엄격한 배우자는 너무 허용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고자 훈육한다. 훈육은 자녀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다. 훈육은 야단치는 것, 혼내는 것, 때리는 것이 아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훈육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로 잘 가르쳐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친구를 밀치거나 욕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분명하게 말로 가르치면 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훈육방법이 있다. 우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하기’다. 이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시간을 조절해야 하고, 반드시 부모가 보이는 안전한 곳에서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방치의 느낌이 들지 않게 아이를 인격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놀이금지’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약속한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훈육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때로는 “아이를 혼내지 마니 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잠 23:13)는 말씀을 곱해하고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상식적이고 보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최근에는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의 행동수정이 필요하다면 즉시성, 효과

성,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교육 측면에서 부부가 마음을 나눌 필요가 있다. 체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훈육을 통해서 자녀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체벌은 자녀를 두렵게 하여 그 순간에 자녀를 통제, 위협하는 것이지 훈육은 아니다. 체벌로 인한 두려움, 수치심, 분노로 자녀들은 고통을 당한다. 훈육에 대한 생각 차이로 부부가 갈등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지혜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표면화된 부부의 갈등은 자녀에게 학대, 불안, 죄의식, 불신 등을 경험하게 한다. 부부의 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다면 자녀가 매우 심각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부부가 갈등을 잘 해결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자녀 양육 방법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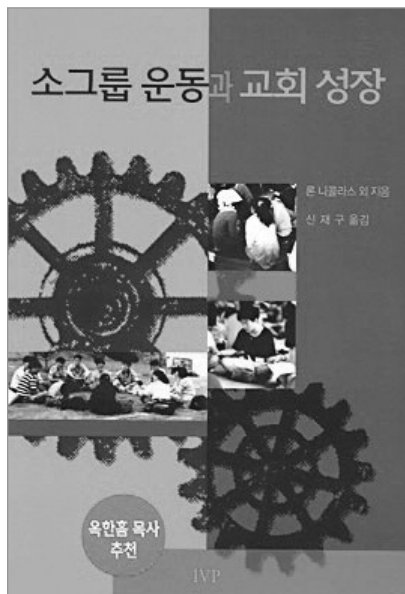


황국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론 니콜라스 외 저 | NP | 10,000원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부분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동체 모임이다. 오늘 소개할 책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은 건강한 소그룹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건강한 소그룹에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선교다. 건강한 소그룹에는 말씀을 통한 양육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한 개인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인해 자라나고 성장한다. 또한 건강한 소그룹에는 찬양과 기도 및 은혜의 방편을 통한 예배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한 개인이나 소그룹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한 통로가 된다. 또한 건강한 소그룹에는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돕는 공동체적 교제가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소그룹에는 밖으로 향하는 선교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소그룹이 그들만의 모임에서 머물지 않고,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건강한 소그룹에는 건강한 리더가 있다. 소그룹에 적절한 리더가 없으면 위태로운 처지에 빠진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부족한 점들이 생길 때 이를 잘 보완해 나가면 한 그룹으로서의 건강한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자질을 겸비한 리더가 없

면 소그룹은 성장에 방해받고, 결국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 이 책에서는 소그룹 리더는 두 가지의 자질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 둘째는 타인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헌신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라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헌신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못 미치면 소그룹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더 자신이 자라고, 타인에게 영향을 줘야 소그룹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셋째, 건강한 소그룹에는 활동 주기가 있다. 이 책은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역학(Group dynamics)을 알려준다. 소그룹은 정제된 유기체가 아니다. 소그룹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탄생부터 유아기, 소년기, 장년기와 때로는 사망까지 이어지는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리더는 특히 주기별 형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소그룹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그에 따라 소그룹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기본적인 주기는 탐색기, 전환기, 활동기, 종료기 네 단계로 나뉜다. 이를 잘 이해하

고 소그룹을 인도한다면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건강한 소그룹에는 새로운 생성이 있다. 소그룹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수 있다. 그렇게되면 이전에 느끼던 친밀감을 곧 상실하게 된다. 여덟 명 정도의 그룹에서 가질 수 있었던 관계의 깊이를 열두 명 혹은 열다섯 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소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 새로운 생성의 단계를 맞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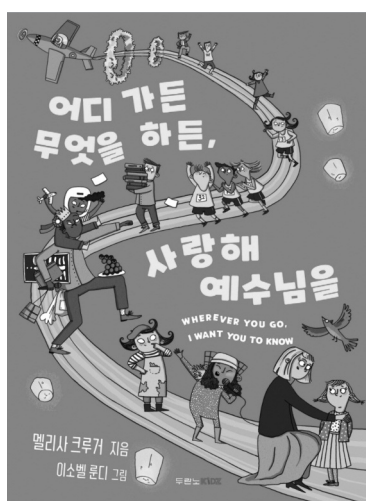
이 책을 요약하면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리더를 통해 양육, 예배, 교제, 선교 등 각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자랄 때 비로소 건강한 소그룹의 모습을 성취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면 책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화수 목사
(온누리교회 대전 캠퍼스)

두란노 신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일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랑해 예수님을〉
리사 크루거 글, 이소벨 룬디 그림
| 두란노 | 8,000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신나는 모험을 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던 무엇을 하든 기억하렴. 아빠엄마에게는 널 향한 큰 꿈이 있단다”라고 응원해준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꿈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짧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최초의 일본 선교사 ‘한석진 목사’



1907년 9월, 7명의 한국인 목사를 배출한 한국 교회는 곧바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한석진 목사 일본, 방기창 목사 중국, 이기풍 목사 제주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다.

평안북도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한석진 목사는 머리가 클수록 유교에 회의를 느꼈다. 매서인 서상륜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1907년 9월 목사 안수를 받은 한석진 목사는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1909년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한석진 목사는 일본에서 석 달 머물면서 유학생 중심의 기독교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 당시 일본에는 1883년부터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핵심 리더들이 한국으로 귀국할 때마다 공동체 활동이 중단되었다.

한석진 목사는 일본에서 머문 석 달 동안 교회와 공동체의 기틀을 잡았다. 그렇게 동경한인교회가 탄생했다. 한석진 목사는 조만식, 김정식, 오천동 영수를 임명하고 귀국했다. 이후에는 국내에서 교회 개척, 〈예수교회보〉 발행 등의 사역을 하다가 1939년 소천했다.

한석진 목사는 자립과 연합을 중요시했다. 한국 교회가 교파로 나뉘지 않고 초교파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다. 또한 마포삼열 선교사와 사역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해서 그 진리를 내 동족에게 전하는데 외국인에게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선교사와 한국 교회가 동등한 관계이기를 주장하고 실천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아직도’

아무리 다짐을 해보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무언가 빠지고 부족해서

먼 산 바라보며 가슴 치리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니

돌아서서 홀로 한숨짓지

이미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안타까이 손을 벌린다

받아먹고 사는 지 이미 오랜데

아직도 주는 이 모르고 살지

이미 왕국을 안겨 준 지 오랜데

아직도 못 믿고 별판을 헤맨다



코로나19, '공동체'와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강서공동체 '환우들을 위한 텐텐기도'

공동체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준 정말 큰 아픔이다. 온라인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순예배도 하고 있지만,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강서공동체는 코로나19에 굴하지 않고 더 뜨거운 교제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환우들을 위한 텐텐기도'도 그중 하나다. 강서공동체 텐텐기도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을 앞둔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밤 10시에 10분 동안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기도회다.

지난해 김바울 성도(가명)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다. 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 소식을 전했더니 곽희준 장로님께서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하면서 텐텐기도를 제안하셨습니다.”

곽희준 장로가 텐텐기도를 떠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곽 장로도 공동체 성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5년 전 저희 아이가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저희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한 텐텐기도로 하나되고 있는 강서공동체 성도들.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공동체 성도님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해 말 김바울 성도를 위한 텐텐기도가 시작됐다. 김바울 성도는 강서공동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그 어떤 위로보다 크고 따뜻했다고 고백했다.

“공동체 성도님들의 정성스러운 중보기도와 위로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강서공동체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철희 집사는 올해 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 다행히 초기 위암은 어렵지 않게 제거했는데, 추가로 발견된 십이지

장 부근의 큰 혹이 문제였다.

“혹을 제거할 때 십이지장에 협착이 발생하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심하고 나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철희 집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강서공동체 성도들이 이번에는 21일 동안 텐텐기도를 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수술을 마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주먹만 한 혹을 꺼냈는데 협착이 없어서 바로 퇴원하고 집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동체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강서공동체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강서공동체는 뇌수술을 앞둔 성도를 위해 또 한 번 텐텐기도를 준비하고 있다. 고범석 목사(강서공동체)는 텐텐기도를 하면서 환우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와 더불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고백했다.

“꾸준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서공동체 성도님들은 텐텐기도를 통해서 아픈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새벽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관악금천공동체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갑자기 다니던 회사의 서울 사무소가 폐쇄되었다. 우리 가족은 가장인 내가 본사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실업자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서게 되었다. 가족이 다 같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모로 힘들었다. 아내의 직장 문제도 있고, 아들 양육을 양가 부모님께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는 당분간 내가 실업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취업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집 근처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예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취업하게 되었다.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회사라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었다는 자만심이 있었다. 퇴사율이 높은 그다지 평판이 좋지 못한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돈을 벌어야 했기에 입사했다.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잘 맞았던 선임들이 연달아 퇴사했다. 마음이 잘 안 맞는 선임과 일을 하게 되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상사와 일을 하게 되면서 짜증이 났다. 자꾸 문제가 발생했다. 이 회사를 오래 다니기



최승혁 성도(관악금천공동체)가 “90일의 기적에 참여하면서 가족이 말씀과 친해졌다”고 고백했다.

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알아보았다. 몇 번의 면접 기회가 있었는데 떨어졌다.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더 좋은 직장을 기대하며 계속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었다. 많은 회사들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원하던 나는 큰 절

망과 좌절을 겪었다.

업무와 야근, 이직에 대한 좌절로 지쳐가고 있을 때 아내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가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 먼저 하자고 했다. 나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좋은 직장을 주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싫습니다.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90일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기로 결심했다. 정말 많이 피곤했지만, 출근길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묵상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있었다. 말씀과 친숙해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도 성경책과 친해졌다. 우리 가족 모두가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말씀과 친숙해졌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같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과 친해지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진 것도 큰 깨달음이자 은혜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가 끝나가기 전에 다른 회사 면접에 합격해서 이직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회사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새벽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싶다.

/ 최승혁 성도(관악금천공동체)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누리복지재단, (주)두비산업과 업무 협약

온누리복지재단과 (주)두비산업이 지난 4월 20일(화) 온누리청소년센터 별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두비산업에서 온누리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교육문화활동,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협약이다. 특히 장학사업은 온누리청소년센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현규 장로((주)두비산업 대표이사)는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온누리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위기 청소년



사진은 온누리복지재단과 (주)두비산업 업무 협약식.

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연계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이자 기도응답”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협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두비산업은 1989년 ‘교회 같은 기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립한 식품가공 기업이다. 천연색소, 천연향신료, 천연원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TV 봄 맞이 개편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편성

CGNTV가 봄 맞이 개편을 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거 편성된다. 새로운 CGNTV 유튜브 콘텐츠도 선보인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는 ‘나의 드림리스트’ <오십쇼>는 남은 인생을 고민하는 중년들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츠다.

휴식시간을 가지던 CGNTV 프로그램들도 돌아온다. 매주 월요일 오후

전 11시 20분에는 <교향교회 리턴즈 믿음의 원정대>가 돌아온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김영우의 스윗사운즈>가 ‘hymnstory’를 주제로 방영된다. 제이레빗의 정다운이 MC로 합류한다.

또한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편성된다. 허브교회 김주환 목사의 <원더풀 바이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의 <예수가 전한 팔복>이 CGNTV 채널에서 방영된다. / 김영선 기자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6월 4일까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Pray for Myanmar’ (이하 미얀마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가 오는 6월 4일까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미얀마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기도문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된다. 하루 한 편씩 게재되는 기도문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담당목사, 미얀마 현장 선교사 및 성도들이 작성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한창이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이슬람의 금식기도기간인 라마단(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에 맞춰 무슬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운동이다. 1993년부터 시작됐다. 30일 기도운동 네트워크가 주

관하고, 온누리M미션이 함께 하고 있다. 매일 홈페이지(30prayer.org)에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정보와 기도제목이 공유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공동체, 순,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더욱 좋다.

‘기독교영성 고전산책 3권 패키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성 고전을 가지고 기독교 영성학 전공자들이 주요 주제와 핵심 본문을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친절하게 해설하고 깊이 있게 강독해주는 ‘기독교영성 고전산책 3권 패키지’ 세미나가 5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낫사의그레고리의 <모세의 생애> 5월 7일과 14일, 베네딕트의 <규칙서> 6월 4일과 11일, 어거스틴의 <고백록> 7월 9일과 16일

이다. 남기정 교수(감리교 신학대학교 영성학), 권혁일 목사(영락수련원 지도목사), 이종태 교수(장로회 신학대학원)가 강의한다. 회비는 12만 원이다. 5월 3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4만 원 할인해준다. 세미나별 신청도 가능하다. 세미나별 회비는 4만 원이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최종 게시일로부터 2주 더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5기 참가자 모집

5월 17일부터 매주 월 오전 10시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족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을 양육하는 과정이다. 참가 신청은 5월 7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나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교재, 물품 포함).

문의: 02-2182-9114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PP(Power Prayer)기도회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4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참가자 모집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성경적 가정원리에 따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는다. 5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5만 원. 문의: 010-9041-5538

창조신앙스쿨 수강생 모집

창조신앙스쿨 서빙고반과 양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반은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양재반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서빙고반 010-7292-2349
양재반 010-4658-0987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

742장 기증, 4월 30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에서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혈증 742장을 모았다(4월 20일 기준). 지난 4월 4일 막을 내린 ‘생명나눔의 기적’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1,036명이 참가했다.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4월 30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목회지원실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에는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38개 교회 및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

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수강 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2539-5665

4월 세례자

■서빙고	김기철 이연주 조예준 190615 이우리 200102 조수향 960919	김상희 820430 김하은 180807 조준환 이선영 이대원 김은민	입교
김은경 760510 김성수 장예진 차오름 200616 이서준 190314 김주연 910905	서미진 861024 김하임 200615 차지호 박미현 이건도 김한주	양회정 900521	유아
송영미 670227 김세민 최혜린 최동규 180724 이승재 181207	심도희 730103 남주원 191025 최용진 윤영은 이강석 감지현	정주안 201220	정혜윤 신은영
이정훈 820124 남이네 고은정 이하은 190409	유아 노현민 190409	■양재	이창엽 차은빛
고빛누리190927 노현웅 최나현 문광민 881009 임은유 190307	고석봉 최화정 백주안 180819 송지은 871104 임승환 정명규	■J4U	입교
김민형 201016 백종영 문윤경 이은실 800122 임은유 200615	김혜성 김지희 신도하 200920 황소정 800701 임승환 정명규	최희주 961215	유아
김슬현 190607 신태식 함아름 유아 장시은 210111 이우하 200524	김현태 신예슬 신유인 190711 강세라 190415 장동진 김정주	이준인 문가현	
김선규 190319 신한글 정규선 강동규 오지희 정태오 190817	김성중 이한나 옥서하 190226 강이영 200630 정환영 이정주	■W	입교
김아린 190813 옥성우 박진미 강신구 우예민 한시아 190731	김종렬 주한별 이규성 201012 김유진 190710 한우희 김은호	박국요 860921	유아
김이든 201024 이대권 김경아 김정근 권순구 홍예슬 190903	김종렬 주한별 이서현 191110 김이든 200102 홍석표 송유리	문슬아 201030	문효동 오한나
김채윤 190802 이재원 이윤경 김대수 현지영	김병훈 이선영 임예지 190613 김하엘 190621	■대청	
김태린 191004 임송빈 양경혜 김경호 유해리	김기철 이연주 정아울 200722 옹하린 180815 장하나 910328	■여호수아	
김태은 180701 정영광 조영은 융장순 박선우 송은서 870717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간증



/ 고혜선 성도(관악금천공동체)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는 친절엄마를 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다.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열심히 읽어서 겨우 3독 정도 했다. 정말 겨우, 간신히, 어렵게 읽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말씀을 읽고 완전히 이해하고, 묵상하고 감동받고, 실천해야 한다. 문맥상으로만 말씀을 읽으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일까, 말씀 읽기가 부담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제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꼭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들어가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읽고 나서도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졌다. 글씨만 읽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공동체 식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장인 내가 뒤쳐질 수 없어서 열심을 냈다.

우연히 무서워하는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 보고 나면 불안했고 마음이 요동쳤다. 불안

함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진들이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 분명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그 사진을 보면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차분했다. 신기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해보니 성경일독을 하고 난 다음부터 불안함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은 읽기만 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능력이 있고, 살아 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두려움과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득 채웠다. 살아있는 생명의 빛을 주고 있었다.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일하고 계셨다. 90일의 기적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것이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조항집 성도(강촌공동체)

벌써 가슴이 뚫다!

나는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지금은 집안 식구들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믿음 좋은 아내도 어머니의 교회 친구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

2007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주일예배 중심의 교회 생활과 다른 경험을 했다. 순예배를 드리며 교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주일에만 교회를 다녀가는 관객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자 일원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따뜻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순장학교 제안을 받았다. 남상욱 장로님과 김진용 순장님께서 적극 추천하셨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는데 문득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장학교에 등록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순장학교 시간에 여러 번 선약이 있었다. 불가피하게 한 번은 결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하셨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전에 약속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 예정보다 일찍 끝나기도 했다.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면서 큰 어

려움 없이 순장학교를 개근했다. 진정으로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경험을 했다. “항집아,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다음은 내가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순장학교에서 교회와 리더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온누리교회의 DNA인 큐티, 일대일제자양육, 순예배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순원들과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성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고, 뜨거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순장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동안 교회의 수많은 리더십들의 수고와 헌신도 알게 되었다. 그분들이야말로 참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다.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생각에 벌써 가슴이 뚫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희경 성도(일본어예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시현이가 “엄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했을 때 마음이 덜컥했다. 내가 너무 신앙교육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현이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좋은 엄마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다. 회개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교회에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과정을 교육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신청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시현이와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 왔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녀가 어릴 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야말로 평생을 살아가는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시현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입으로 고백했다.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등을 깨닫고 고백했다. 너무 감사했다. 시현이의 간증을 나누면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소감을 마치고자 한다.

“나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엄마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다. 구원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랑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서 좋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모하고 고모부랑 형,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고모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고 싶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수료 간증



/ 윤미덕 집사(광명공동체)

한 팀이 되어 승리를 향하여!

부부회복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을 소개받았을 때 우리 부부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감흥이 없었다. 꼭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부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첫 주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미션은 ‘원가정 돌아보기’와 ‘추억의 장소에 가서 대화하기’였다. 미션을 받고 처음으로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그때 느꼈던 감정과 힘들었던 기억을 담담하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다. 남편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공감해주는 시간을 보내면서 현재 남편의 모습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프닝 동영상을 보면서 남편의 전투적인 삶과 과도한 책임감을 생각하게 됐다. 남편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납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적용해보기로 했다. 수업을 진행할수록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이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였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주 ‘파인딩 셀프 시간’에는 나의 내면을 살펴보았다. 돌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로 인해 외로웠고, 공감 받지 못해 슬펐던 기억이 났다. 코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다. 슬퍼하고 있는 나를 남편이 따뜻하게 안아주며 기도해주었다. 예수님의 파스함을 느꼈고, 더이상 어린 시절을 떠올려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게 됐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우리 부부의 변화다. 전에는 완벽주의인 남편이 나를 지적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었고 말투와 눈빛이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었다. 지금은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 배운 나 전달법을 이용해서 대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남편도 자신의 행동과 말투를 수정하려고 노력하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부부가 한 팀이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미래를 꿈꾼다.

장로칼럼

성도가 예수님 사랑 전달하는 미디어!



홍충선 장로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미디어사역본부)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굉장한 은혜였다. 담임목사님의 목소리로 AI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것이 일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ICT 기술의 발달과 읽기 중심에서 듣기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코로나19로 교회 미디어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성도들을 위한 미디어 환경이 풍성해졌다는 것이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상예배가 제공되고, 오롯이 영상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미디어 예배도 제작되고 있다. CGNTV가 론칭한 기독교 OTT ‘풍당’, 공동체 소속되지 않은 성도, 전도대상자, 구도자들을 위한 ‘온라인커뮤니티’ 등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곧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한국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성도들을 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했다. 반면 새신자 혹은 전도대상자를 위한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기독교 OTT 풍당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도들이나 교회에 관심 있는 비신자들에게는 좋은 미디어지만, 전도대상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미디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전도가 위축되고 있다. 내가 청년일 때는 노방전도와 방문전도가 가능했다. 길에서 만난 전도대상자들에게 사영리로 복음을 전하면 전도대상자들이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드리곤 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문전도가 가능했었다. 점차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도를 위한 미디어 전략이 필요한 때다. 사실 코로나19 이전 전도하기 좋은 환경에서조차 한국 교회는 전도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존 성도들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것 같다. 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간의 수평 이동도 줄어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환경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어야 한다. 콘텐츠 제작이 끝이 아니다. 전도대상자들이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AI기술을 활용해서 전도대상자들에게 노출하면 된다.

무엇보다 교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미디어 환경을 구성해도 교회에 대한 인식과 평판이 바닥이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탐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가정, 직장, 학교 등 삶에서 의도적으로라도 교회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90일의 기적 생명나눔의 기적이 좋은 예다. 기후변화 대처에도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무브먼트(movement)를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이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되어야 한다.

권사칼럼

물 댄 동산의 축복



조은미 권사
(온누리교회 강동 캠퍼스)

코로나19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빼앗겼다. 마스크에 족쇄 채운 음울한 날들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지 2년이 되어간다. 경제가 마비되고, 곳곳에 좌절과 무기력과 우울함이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예전 데 덮쳐

교회발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어렵게 됐다. 우리의 자존감은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져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그 위기 가운데 지난 1월 ‘90일의 기적’이 시작됐다. 새벽기도회로의 부르심은 나에게 작은 희망의 끈으로 다가왔다.

모든 사회적 활동이 중단되고 일상이 빠져나간 험령한 시간이 계속될수록 공허함과 허탈감이 내 안에 찾아왔다. 말씀에 대한 심한 허기를 느꼈다. 나를 붙드는 의미를 어디서든 찾아야 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나이 많은 사람은 빠져주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차를 가지고 새벽에 밖을 나가기도 주저되어 새벽기도회 참석은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이래저래 예배에 갈증을 느끼던 차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다. 나의 아침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리라 다짐했다.

이번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받은 것이 있다. 매일 아침 큐티 묵상 노트를 기록해서 200여 명의 지인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나누었다. 전문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나누는 큐티 묵상을 기다리는 지인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도 아침마다 배달되는 말씀을 기다렸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늘 긍정의 에너지

를 받아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된다”는 인사를 보내오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친다. 작은 헌신이 가져다주는 보람이 얼마나 크고 행복하던지 지금까지도 묵상 나눔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내게도 변화가 생겼다. 우울함이 날아가고, 온몸에 힘이 솟는 변화를 경험한다. 개인적으로 한때 방황하던 외손녀딸을 위해 늘 기도했다.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고, 공부에 열심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90일의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 돌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울하고 활기 없던 삶에 촉촉한 윤기가 돌게 하신다. 하루하루를 늘 감사와 찬양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90일의 기적이 끝난 지금도 나는 5시 40분에 맞춰진 알람에 눈을 뜬다. 이제는 습관이 된 큐티 나눔을 매일 이어가고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내게 정말 기적이었다. 메말랐던 나의 영혼에 물 댄 동산처럼 말씀으로 풍성해진 은혜를 누리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럽고 우울하고 두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변했다.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온다. 절망적으로만 보이던 것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가만히 있어도 입이 귀에 걸린다.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예뻐졌다며 비결을 묻는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 전문이 되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리라 다짐한다.

신앙에세이



채현석 선교사
(2000 선교본부)

서양 속담에 “흐린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록해둔 것이야말로 후대에 이를 읽는 자들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에스더 6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자신의 통치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개와 공적을 알게 되고, 모르드개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기록을 활용하셔서 이방 왕을 움직여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역사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

이다.

사실 모든 성경도 하나의 역사 기록이다. 이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할 것을 명하셨다.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기록해 전함으로 써 오늘날 우리 손에 이 귀중한 성경이 주어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기록하는 자의 귀중함도 배우게 된다.

필자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공부했다. 또한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였다. 지금은 2000선교본부에서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험들 덕분에 종종 한국의 역사유적 및 초기 기독교 선교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해설하는 기회

를 얻는다.

지난 3월 선교본부에서 일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서울 정동의 선교유적을 탐방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정동에 있는 ‘서울성공회 성당’을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로 좋아하고 기쁘게 해설하곤 한다. 이 건물은 역사 기록물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일화를 담고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 이 성당은 평면이 하늘에서 보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 1926년 지을 때에는 건축 재정 부족으로 원래 설계대로 짓지 못하고 뒷부분(십자가 아래 부분) 절반만 지은 채 마감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뒷부분을 증축하여 완성된 형태로 짓고자 하였으나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래 설계를 찾지 못하는 한 문화재위원회의 증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런데 한 영국인 관광객이 이 성당을 관람하고 돌아간 후 영국의 한 도서관에 남아있던 성당의 원래 설계도를 발견해서 알려왔다. 그리

하여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축하게 됐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해설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건축물조차 남겨진 기록물(설계도)과 정성스러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울컥하곤 한다. 이번 탐방에서도 어김없이 울컥하며 눈물을 조금 흘렸는데, 동료 선교사 한 분의 후기가 더욱 감격스러웠다.

“하마터면 원래대로 지어질 수 없었을 성당의 원래 설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 본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던 과정을 보며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몸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채현석 선교사님의 눈물이 공감되었습니다. 감동입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지할 때 모든 괴로움을 통해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대할 때 내일이 아닌 영원으로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영원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오늘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아셨습니다. 내일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불법 재판에 넘겨지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내일의 고통을 아는 분 같지 않습니다. 만일 내일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있을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오늘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영원을 의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영원을 대입해 보십시오. “이 고민을 영원히 할 고민인가? 영원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민인가?”라고 질문해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영원히 우리를 괴롭게 할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있을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은 끝이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지만 영원은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영원에 속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영원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일의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이길 힘을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의 걱정을 오늘 가져와서 괴로워하고, 영원에 속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좁은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믿음 ‘하물며’, ‘아신다’, ‘더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30절).

여러분, 성경을 암송할 때 완벽하게 외워야 암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게 진짜 암송입니다.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루 있다가 불에 던져지는 저 들쭉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은 ‘아신다’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2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고, 내 능력으로 얻은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더해 주신다’의 믿음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33절).

홍해선교회를 만들어서 40년 동안 중동 선교를 했던 캐나다의 한 의료선교사님에게 “40년 동안 어떻게 이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어느 단체가 후원을 했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의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한 믿음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삶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염세주의, 폐쇄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걱정이 있다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해야 할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간절함 있는지를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는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우선순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 놓을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두 번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두 번째 것들은 억눌려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때 나머지는 덩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일의 걱정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오늘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걱정으로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괴로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일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 기독교 OTT ‘풍당’ 키즈(Kids) 콘텐츠

바닷속 믿음의 모험 ‘Sea Kids’



“예수님과 함께 걷는 바닷속 생물들을 통해 신앙을 배운다.”

기독교 OTT ‘풍당’ 키즈 콘텐츠 ‘Sea Kids’의 모토다. 귀여운 바닷가재, 거북이, 상어, 문어 친구들의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수줍음 많

은 바닷가재 ‘카터’, 급한 성격의 거북이 ‘크리스티안’, 운동 신경이 좋은 문어 ‘프레디’ 등이 학교, 일상, 가정,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연습한다. 2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에는 존중, 나눔, 사랑, 정직, 정돈, 스마트폰 절제, 교회, 성경읽기 등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교제의 무엇인지 알려주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심어주기 위해 이보다 좋은 콘텐츠가 없다.

‘Sea Kids’는 기독교 동화 작가 ‘리 앤 맨시니’의 동화 <Adventures of the Sea Kids> 시리즈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북미에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국내에서는 CGNTV가 최초로 기독교 OTT 풍당에서 더빙판을 보급하고 있다. 총 6편의 ‘Sea Kids’가 업로드되어 있다.

전신갑주 입은 크리스천 히어로 ‘바이블맨’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히어로들의 액션보다 통쾌하고 선한 크리스천 히어로물 ‘바이블맨’을 기독교 OTT 풍당에서 만날 수 있다.

바이블맨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크리스천 히어로다. 성령의 검과 말씀으로 악당

들을 물리치고, 어린이들을 말씀 앞으로 이끈다. 바이블결과 조수 사이퍼, 멜로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들을 지킨다. 폭력, 불순종, 비열함, 의심, 갈등, 공포 등을 조장하는 악당들이 어린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면 바이블맨이 나타나 말씀으로 물리친다.

크리스천 히어로 ‘바이블맨’에는 ‘믿음의 여정’, ‘정직의 여정’, ‘감사의 여정’, ‘친절의 여정’, ‘증거의 여정’, ‘겸손의 여정’, ‘존경의 여정’ 등 24편의 주제가 있다. 영상은 10분 내외다.

바이블맨은 1995년부터 TV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공연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받던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말씀의 진정한 힘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콘텐츠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4/24-25

낮은 곳 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키워가는 더멋진세상
감염확산의 위기로 아파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지금 사랑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건너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행 16:9



정기후원

홈페이지 www.betterworld.or.kr
우리은행 1005-702-00253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8

소식받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카톡 상단 “더멋진세상” 검색 후 채널 추가
유튜브 구독하기 채널명 “더멋진세상bette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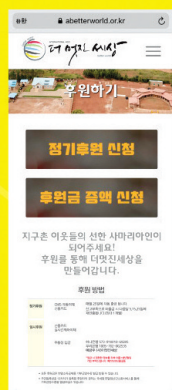
INTERNATIONAL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후원 바로 가기

1. 카메라 열고
갖다 대기
2. 카메라 상단에
뜨는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3. 정기후원/증액
신청



더멋진세상 사역국가 (24개국)
세네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르완다, 우간다,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몽골,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요르단, 레바논, 멕시코, 니카라과, 온두라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남수단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